

退溪의 視覺教授方法論**

千 炳 基*

• 目 次 •

I. 서론	III. 退溪의 視覺教授方法論
II. 退溪의 視覺教授方法의 분석	IV. 결론

I. 서론

1. 問題의 提起

조선조 교육에 있어서 시각적 교육방법으로서는 權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李萬珪는 “陽村의 교수는 철두철미의 도표식 교수의 실천인으로 교육사에 특기할 만한 교수법”(이만규, 1947 : 327)이라 했으며 韓基彦도 “權近의 주요제작 중 특히 入學圖說은 교육학적 의의에 비추어 보아 오늘날 재평가(높이 평가)되어야 할 줄 안다.”(한기연, 1964: 83)라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권근의 입학도설을 연구하였던 바 그 결론으로 “입학도설은 43면의 도면과 해설로서 당시의 중등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서삼경을 초학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저술한 것으로서 언어나 문장만의 비효과성을 지적한 사실이나 도면의 효과성을 강조한 사실이나 도면을 통한 교수실례들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 전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8-2호(1987) 게재논문

을 현대적 교육의 측면에서 검토한 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천병기, 1969 : 22)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에 한국학대백과사전 내의 書誌部分에 수록된 목록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조시대에서 저술된 고전 1,580여권 중에서 한 저서 내에 대부분의 도면이나 그림으로 된 것이 58권이나 되었다.”(천병기, 1977 : 68) 그리고 시각교수론적 견해에 있어서도 “而加涵養體驗之功積累多後 自當有豁然貫道處”(퇴계전서 上, 1958 : 603)이라든가 “窮理而驗於踐履 始爲眞知”(퇴계전서 上, 1958 : 370) 그리고 “其舊譯諺書 語甚簡難解 又皆增刪改穢 便觀者 雖愚夫愚婦 皆得瞭然易知”(武藝圖譜通志, 1790 : 序二)라고 하였다 등등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조 교육사의 전반에 걸쳐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양이 많음으로 우선 퇴계선생을 대상으로 간수하였다. 퇴계의 총저서 중에서 圖說의 실제와 견해를 찾아서 분석하여 퇴계의 시각교수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반적 연구의 기점으로 삼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과 資料

문헌적 연구로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된 퇴계전서, 1958, 상하권을 주자료로 하고 기타 퇴계의 저서와 퇴계관계 연구문헌들을 부자료로 한다.

3. 概念의 定義

본 논문의 제목에서 「視覺敎授」라고 했으나 이 용어는 서양에 있어서 그림이나 도면이나 모형이나 경험이나 체험 등을 이용한 교수방법으로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視覺敎授方法」이 발전된 전후방법들을 찾아서 뜻을 확실히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視覺敎授」는 17세기의 철학적 경험론을 배경으로 한 교수법으로 체

계화된 직관교수방법의 발전된 형태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直觀教授」 법부터 정의해 보고자 한다. 「直觀教授」는 필자의 논문에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 개념으로서 직관교수(Anschauung Santerricht)는 주로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수방법이며 교수를 하는데 문자나 문장이나 구술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사물을 관찰시키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림이나 모형이나 표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천병기, 1977 : 2) 이러한 「直觀教授」 방법은 17세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1930년대에 이르러 Hoban. Ch 등은 그의 논문에서 「視覺教授」를 정의하기를 “교육의 목적은 경험의 일반화에 있다고 하고 개개의 경험을 얻는 것만으로는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을 일반화하여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 일반화 과정에서는 언어만 가지고는 안되며 경험의 뒷받침이 없는 추상개념만으로도 안된다고 하고 추상개념과 경험을 결부시켜 주는 반구체 반추상적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Hoban, 1937: 21) 하여 전체 장면의 경험에서부터 실물, 표본, 사진, 도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Dale. E.은 그의 저서에서 “교육의 목적은 개념의 형성에 있다고 하고 이것을 언어만으로 하면 경험의 뒷받침이 없어 Vabalism에 빠지게 됨으로 먼저 개념형성의 기초로서 풍부한 경험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Dale. E, 1946: 19) 그리고 직접적·목적적 체험과 경험에서 모의 경험, 견학, TV, 도면 등의 교재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청각 교육은 시각에다 聽만 부가된 것이고 견해는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보면 「視覺教授」의 정의는

- ① 표상적 관찰로서의 그림이나 실물 견학을 통한 교수방법
- ② 감성작용을 겸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한 교수방법
- ③ 간접적 경험으로서 영화와 그리고 재구성된 도면이나 모형같은 교재를 이용하는 교수방법이다.

이상의 교수방법들은 실물이나 도면이나 체험 등을 이용한 방법들로

서 철학적 경험론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63년에 이르러 여러 방향의 발전과 여건으로서 경험론이 아니라 과학적 학문인 Communication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Audio Visual Communication」이라고 하여 용어가 정의되었다. 정의된 내용의 일부를 보면 “Audio Visual Communication이란 교육이론과 실천의 일부이고 학습과정을 統御하는 각종 message의 고안과 사용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 이든지 학습과정에 이용되는 표상적(Pictorial) 및 비표상적 message의 각각의 특성과 유효범위의 연구를 하는”(Ely. p, 1963 : 18)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과학적 이론이 배경이 되고 있어서 감성적 경험이나 체험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둘째로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교재의 관점이다.

셋째는 구상적 기호(실물, 그림)와 형태적 기호, 상징적 기호인 문자 등을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상 도면이나 모형이나 경험·체험 등을 교수방법으로 이용하는 서양의 「視覺教授」방법을 기준으로 퇴계선생이 교수상에서 도면이나 모형이나 체험 등을 이용한 방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退溪의 視覺教授方法의 분석

퇴계의 시각교수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퇴계의 모든 저서 중에서 시각교수방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사례들과 견해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자 한다.

1. 退溪의 視覺教授方法의 實際分析

퇴계의 저서 중에서 전편이 도설로서 되어 있는 星學十圖와 啓蒙傳疑

등도 있고 한 편 내에 몇 면만의 도설이 있는 편도 있다. 이들을 성학십도, 계몽전의, 그리고 도설 이외의 시각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星學十圖

본 저서는 퇴계가 68세(1568년)에 저술한 것으로서 평생 동안 공부한 聖學을 17세 된 선조의 공부를 위하여 총정리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면을 그리고 해설을 한 것이다(퇴계전서 上: 196).

① 星學十圖內的 圖面表²⁾

順	圖名	作圖意圖	圖의 種類	著述者	作圖說者
1	大極圖	②	組織圖表	周濂溪	
2	西銘	①	系統圖表	橫準張氏	林隱程氏
3	小學圖	①	系統圖表	朱子	退溪
4	大學圖	①	系統圖表	孔子	權近
5	白鹿洞規圖	①	系統圖表	朱子	退溪
6	心統性情圖	①	組織圖表	林隱程氏	退溪改正
7	仁說圖	③	系統圖表	朱子	朱子
8	心學圖	③	圖解	林隱程氏編著	林隱程氏
9	敬齋箴圖	①	組織圖表	朱子	王魯齋
10	夙興夜寐箴圖	①	組織圖表	陳茂鄉	退溪

이상 도표화된 10도 중 퇴계가 직접 작도설한 것 중에서 夙興夜寐箴圖說과 心統性情圖를 대표적으로 분석한다.

2) 도면내의 ○안의 숫자는 다음을 표시한다.

- ① 대의과약을 위한 도설
- ② 한 개념이나 事象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설
- ③ 각 개념의 상호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도설

② 圖說方法의 분석

ㄱ. 夙興夜寐箴(퇴계전서 上: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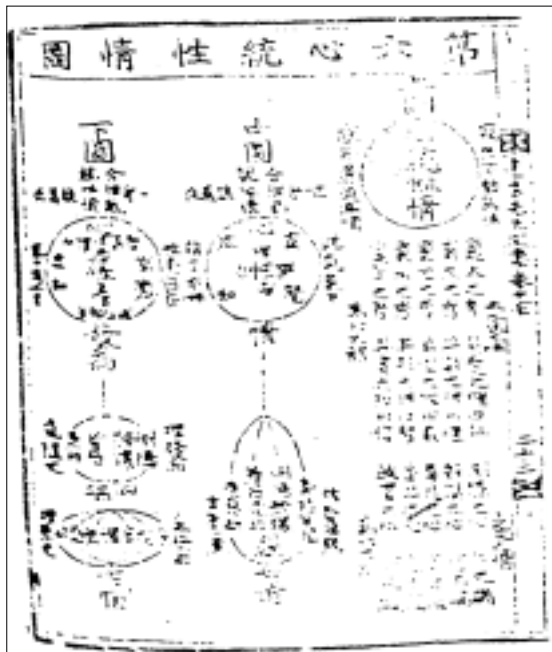
이 도면은 퇴계가 魯齋의 敬齋箴圖를 모방하여 공부를 할 때를 따라서 배열한 것이다. 퇴계선생은 설명 중에서 조리를 요연하게 알아두어 라고 한 “…次第條理 瞭然默識” 것은 도면 내의 배열도 절차와 조리를 잘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선생이 직접 작도한 도면은 각 항목이 조리도 있고 순서와 계통이 잘 되어 있고 문자의 대소와 괄호안의 문자와 사선의 방법 등으로 그 기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하겠다.

ㄴ. 心統性情圖(퇴계전서 上: 204)

이 도면은 林隱程氏가 性과 情을 통제하는 방법을 밝힌 것으로서 원

래 이 上圖만이 있었는데 퇴계가 中圖와 下圖를 첨가하여 3도로 완성시킨 것이다.



도설의 순서로서 신이 삼가 생각하건데 마음을 바르게하여 성을 기른다는 말의 앞에 놓여 있고 여기에는 도리어 뒤에 있는 것은 마음이 정을 거느린 것을 말한 까닭입니다. “謹按程子好學論約其情在正心養性之前，此反居後，此以心統性情言故也……”(퇴계전서 上: 205) 趙南國씨는 이 句를 情을 앞에 놓고 性을 뒤에 놓은 것은 心을 귀납적으로 설명한 것(조남국, 1986 : 77)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교육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수의 순서인 것이다. 작도의 방법도 원과 타원을 조화시킨 것과 내용의 배열 등이 잘 체계화되어 있다. 分圖를 한 도면에 넣은 것은 한눈에 참조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林隱程씨의 작도한 도면에 대한 퇴계선생의 지적인 글을 보면은 心學의 중요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로 대치되도록 하였고 위에서 아래로 배열한 것과 얕은 것과 깊은 것을 그리고 생소한 것과 익숙한 것 등의 대비배열이 잘 되어 있다.

“心學名言 爲是圖分類 對置多而不厭 以見聖學心法……其從上排下 只以淺深生熟之大槩……”(퇴계전서: 208) 기술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도면의 구성에 대한 견해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啓蒙傳疑

본서는 퇴계가 57세(1557년)에 저술한 것으로서 저술의 동기는 “朱子全書의 啓蒙傳疑가 심오하고 착란한 이치를 잘 밝히고 있으나 理數의 학문이 너무 넓고 미묘하고 복잡하여 연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의심나는 것이 많아 주해도 필요하고 乘除의 법을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韓邦奇의 계몽의견도 있으나 이것도 도면이 너무 복잡하고 해설이 어려워서 새로이 도면을 그리고 해설을 다시 하게 되었다.”(퇴계전서 下: 209)고 하여 기존의 책이 너무 어렵고 또 그 속에 있는 도면들이 복잡하고 해설도 쉽지 않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상 도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를 작성했다.

① 啓蒙傳疑內的 圖面表

順	圖 名	作 成 意 圖	圖의 種類
1	納 音 圖	③	配列圖表
2	落書四正名居四隅類附圖	②	圖 解
3	落書七八九六迭爲肖長圖	②	圖 解
4	折合補空(橫圖)	②	配列圖表
5	朱子以數分卦之圖	②	組織圖表
6	胡氏以互配分卦之圖	②	組織圖表
7	易 圖 說	②	配列圖表
8	以五乘十以十乘五圖	②	圖 解
9	朱子說圖	②	組織圖表
10	董氏說圖	②	組織圖表
11	邵子說圖	②	組織圖表
12	朱子說圖	②	組織圖表
13	參同契의 納甲圖	③	配列圖表
14	總 父 圖	②	配列圖表

順	圖 名	作 成 意 圖	圖의 種類
15	卜菴元龜渾天六位圖	③	配列圖表
16	六十四卦分屬八宮圖	③	配列圖表
17	乾坤二宮爲圖	③	配列圖表
18	流戊就三圖	②	圖 解
19	五衍爲五十圖	②	圖 解
20	四象虛以相待圖	③	配列圖表
21	玉齋卦勃數該八卦象圖	③	配列圖表
22	蔡氏四十九著虛體數圖	③	配列圖表
23	當期之日柱閏法(25圖)	②	圖 解
48	卜菴龜○以錢代著法	②	圖 繪
49	八卦納甲	③	配列圖表
50	易髓書幹支納甲圖	③	配列圖表
計	50 圖		

이상 계몽전의 내의 도설을 도표화했다. 이 중에서 도설로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본다.

② 圖說의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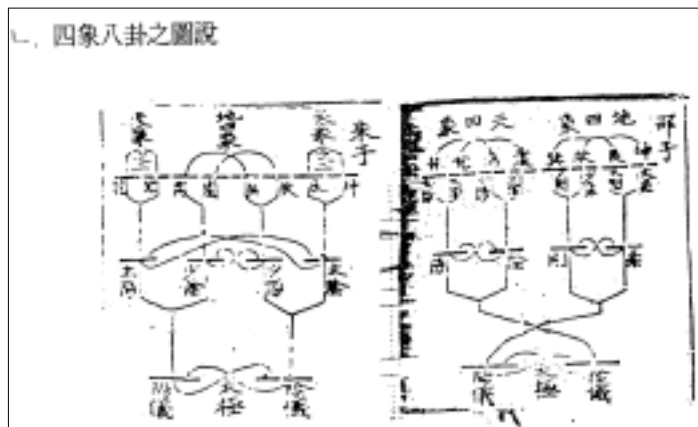
ㄱ. 折合補空의 橫圖

퇴계는 易圖說은 數로서 卦를 나누는 것이 가장 요긴한 내용이라고 하고 주자의 말과 胡氏의 말이 서로 같은데도 있고 다른데도 있으니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4개의 도표를 그리고 해설을 하였다고 하고 먼저 주자의 말을 밝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의 도표로서 작성하고 쉽게 해설을 했다.

“…朱子之說與此胡氏說 互有異同 今且先以橫圖明 先子之說 次而條析兩說所以異同之故然後…”(퇴계전서 下: 215)

이 도설을 보면 어려운 이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도했다. 그리고 음양을 각 흑백으로 나타내어 상호관계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리고 원사각으로 그 類를 잘 구별하고 있다.

ㄴ. 四象八卦之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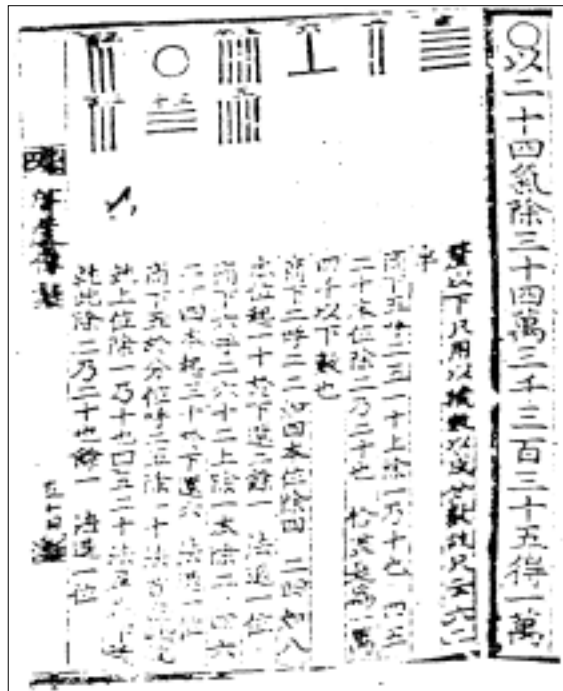


퇴계는 “소자와 주자의 四象八卦의 설명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

을 玉齋가 상세히 해설을 하고 있으나 그 뜻과 범례가 매우 복잡하고 혼잡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음으로 圖로 그려서 상세히 해설을 했다.”(퇴계전서 下: 222)고 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은 퇴계선생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도설을 했다고 하고 있고 각 개념 간의 관계를 직선·곡선 등으로 균형있게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의 大小로서 개념의 類를 직감적으로 알게 하고 있다.

ㄷ. 曆書計算法

曆算의 계산 방법은 어떤 수를 놓고 곱셈과 나눗셈을 한다고 했으나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서 초학자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두 그림표를 만들어 辭說을 한다.



“曆算雖云 置某數乘除 不著布算之法 初學未易曉 今悉爲圖如左”(퇴계 전서 下: 233)고 하고 이것은 24절기로 343,335를 나누면 14,305분 6리 5홀이 된다는 계산 방법인데 숫자를 棒型으로 상형화해서 직감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고 과정적으로 잘 풀어서 도해화하고 있다. 그리고 해설도 그 순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 기타 圖說의 분석

퇴계의 저서 중에서 한 편에 몇 도면만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하여 도표화했다.

① 기타 저서 내의 圖面表

順	圖名	作圖意圖	圖種類	所在著書
1	乾卦上九講義圖	①	配列圖表	退溪文集內集 全書上 P.217
2	西銘考證講義	③	系統內表	筭經筵講義 " P.219
3	擬上文昭殿議并圖	③	配置圖	啓議 P.224
4	朱子周大裕圖	③	配置圖	啓議 P.225
5	今擬定文昭殿圖	③	配置圖	啓議 P.225
6	古宗廟後寢各爲一廟圖	③	配置圖	啓議 P.227
7	天子七廟時禘室當異位圖	③	配置圖	啓議 P.228
8	律等圖	②	圖解	書卷十一 P.317
9	律等圖	②	圖解	書卷十一 P.317
10	開方算法 九歸法	②	圖解	書卷十一 P.317
11	開方算法 四歸圖	②	圖解	書卷十一 P.317
12	九十乘十二分法 (10面)	②	圖解	書卷十一 P.317
22	經席所陳庶蒙	③	配列圖表	卷十八書 P.457
23	太極舊中圖	②	圖解	卷三十書 P.709
24	太極舊下圖	②	圖解	卷三十書 P.709
25	太極今改中圖	②	圖解	卷三十書 P.709
26	太極今改下圖	②	圖解	卷三十書 P.709
27	程林隱氣圖	②	圖解	卷三十二書 P.747
28	九氣圖	②	圖解	卷三十二書 P.748
29	天命舊圖	②	圖解	卷四十一雜書 P.915
30	天命新圖	②	圖解	卷四十一雜書 P.915
31	安文成公享圖	②	配置圖	卷八雜書全書下 P.139
32	退溪先生世系圖	①	系統圖	卷首 PP.553~575
計	32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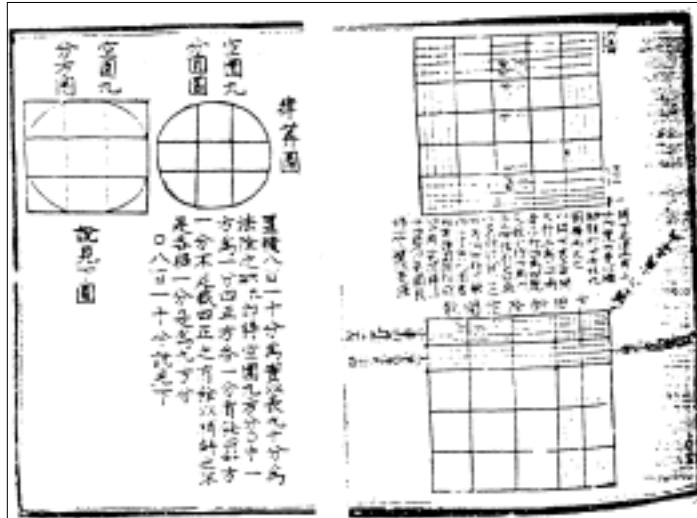
이상 기타 저서 내의 도설들을 정리하여 도표화했다. 이 중 도설로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본다.

② 圖說의 방법분석

ㄱ. 律算圖

퇴계선생이 李仲久에게 답하는 글에서 田制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도해로서 해설을 하고 있다.

“田制布算圖解 展讀慰豁……百分取一 承示曉然……”(퇴계전서 上: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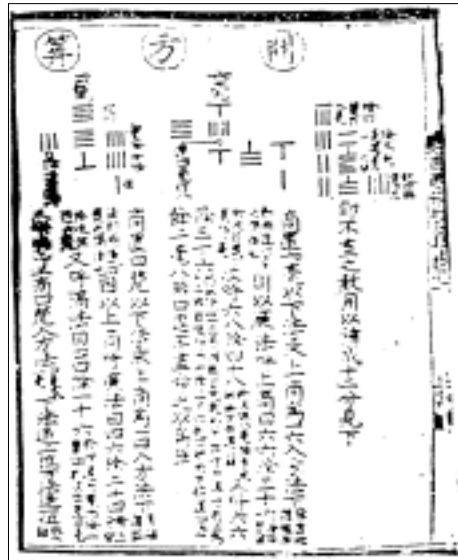


이라고 하여 田制의 계산하는 방법을 도해로서 나타냈다고 하고 百分之一로 명료히 나타냈다고 하여 또 并圖로 도면 내에 간단한 기록도 하여 이해를 위하여 보충하고 있다. 실제의 田地를 정확하게 백분지일로 하고 원과 사각으로 실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전지를 세분하여 적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개해 놓았다고 생각된다.

ㄴ. 開方방법 (퇴계전서 上: 317)

開方과 계산법을 도면과 并記 및 해설로서 한 것인데 開方方法의 제목은 원괄호를 하여 도면 내의 사항들과 혼란되지 않게 잘 나타내게 했고 숫자를 棒型 기호로서 형상화했고 그 象에 해당하는 내용을 并記하고 있다.



(4) 입체적인 모형

퇴계선생은 李德弘을 시켜 지구의의를 만들어 天象을 살피게 했다.

“令德弘造璿璣玉衡 以察天象” (퇴계전서 下: 79)

이 璿璣玉衡은 지금의 지구의의이다. 당시의 天象의 이론들을 모형으로 만들고 모형의 표면에 적도와 위도·경도를 적고 있다.

이 璿璣玉衡은 현 陶山書院의 玩樂齋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에 평면적인 도면 이외에 모형을 만들어서 교수에 이용했다는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5) 退溪의 視覺教授方法의 실제요약

이상 퇴계의 시각교수방법의 실제를 성학십도, 계몽전의와 기타 저서의 도설, 그리고 도설 이외의 시각적 방법 등 4개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것을 합하여 요약 정리하면

- ① 도설 작성의 목적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의 도면이나 해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간결하고 쉽게 했다.
- ② 도면의 면수는 퇴계전서 내에는 93면이다.
- ③ 도설 작성의 의도별로 보면
 - ㄱ. 대의과약을 위한 것이 9면
 - ㄴ. 한 개념이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 65면
 - ㄷ. 각 개념이나 사실의 상호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 19도
- ④ 도면의 종류는 조직도표 10면, 계통도표 7면, 배열도표 15면, 배치도표 6면, 도해 55면
- ⑤ 도면을 먼저 제시하고 해설을 후에 하고 있다.
- ⑥ 도면과 并記와 并說을 구별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여 그 효과를 올리고 있다.
- ⑦ 圖說作成의 기술적인 면
 - ㄱ. 방대한 내용을 조리있게 계통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지적도 하였고 또 실제로 잘 하였다.
 - ㄴ. 도면내의 배열순을 행하는 순, 내용의 순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지적도 하였으며 또 잘 행하였다.
 - ㄷ. 도설의 순을 연역적으로 또는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 ㄹ. 도면내의 각 항목을 중횡, 상하 문자의 대소, 괄호, 흑백, 원, 사각 등으로 상호 대치시켜 深淺, 輕重관계를 잘 나타내는 방법을 언급도 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다.
 - ㅁ. 각 개념이나 사상간의 상호관계를 직선·곡선 등으로 균형있게 연결시켜 계통적으로 잘나타내고 있다.
 - ㅂ. 입체적인 모형도 제작하여 이용했다.

2. 視覺敎授方法의 견해분석

전항에서 퇴계의 시각교수방법의 실체를 분석했다. 이 항에서는 퇴계의 저술 중에서 시각교수방법의 견해를 찾아내어 분석하고자 한다.

(1) 聖學十圖筭의 태극도설의 해설문 중에서 “……惟人也得其秀而最靈形既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矣”(퇴계전서 上, 1958: 198)이라고 했다. 이 글 중에서 “神發知矣”라고 하여 정신이 지각을 발하여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矣”에서 五性이 감동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만사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하여 心の 작용에 의해서 五性이 감동된다고 한 것인데 유학에 있어서는 지적 이론본위가 아니고 도덕적·실천적 행동본위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신이 지각을 발하여 五性이 감동된다는 과정적 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惟人……最靈”이라든가 “心……虛靈不測” 그리고 “虛靈心之本體”라고 하는 문구들은 마음은 텅 비어 있다고 한 뜻이 되겠으나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퇴계는 성학십도 내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然而心之虛靈 若無以主宰 則事當前而不思”(퇴계전서 上: 197)라고 하여 心은 허령하나 주재하는 힘이 있다고 했으며, 또한 “心之官則 思則得之”(퇴계전서 上: 197)라고 하여 心の 官(知覺)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생각하면 얻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요약하면 心은 허령하나 지각을 통하여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만사를 주재하게 된다고 하는 心の 특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서양에 있어서 관념론³⁾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虛靈在上 知覺在下 何也”라는 물음에 퇴계선생은 “虛靈 心之本體 知覺乃所以應接事物者也 所以如此矣”(퇴계전서 下, 1958: 697)라고 하여 허령은 마음의 본체는 지각은 곧 사물을 응접하는 것이라고 하여 텅 비어있는 心中에 사물이 응접되는데 따라 수용되는 경험론의 견해를 말

3) 관념론과 경험론을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뜻으로 요약한다.

- ① 관념론-직접 감각기관에 나타나지 않고 사물에 떠오르는 心象이며 선형적·주관적 사고작용을 강조하는 학설.
- ② 경험론-모든 인식은 감성적·실제적·구체적 경험에 의한다는 학설.
본 논문에서는 이 요약된 뜻으로 인용한다.

하고 있으며 과정적으로는 사물에 응접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따라 지각된다고 하고 있다. 위 글에서 心之本體가 허령하다는 뜻은 또 다른 뜻을 찾을 수 있다. 퇴계선생이 율곡에게 보내는 글에서 “虛心觀理 勿先執定於己見”(퇴계전서 上: 370)이라 하여 마음을 텅 비우고 理를 보고 자기의 선입견을 먼저 가지지 말라고 했는 뜻은 마음은 허령하나 텅 비고 순백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상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마음 속에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心의 작용에 의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李完裁는 퇴계의 학문 방법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선입견의 배제를 강조하고 진리는 공명정대하고 至公無私한데로 반영되고 수용되는 것”(퇴계연구회, 1972:383)이라고 하고 있다. 心이 허령하다 함을 요약해보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感觸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순수하고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진리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견해는 “서양에 있어서 인식은 객관적인 실재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관념적 경험론”⁴⁾(서명원, 1975 : 785)의 뜻이 된다고 하겠다.

(3) 언행록 입지를 논하는 글에서 “沈潛反覆 或驗之踐履之實 或察之義理之精 或以文義推之”(퇴계 下: 644)라고 하며 뜻을 세운 뒤에는 沈潛해서 대상에 폭 파문혀서 거듭 거듭 실제의 실천을 통하여 체험을 한다든가 혹은 이치의 깊은 것을 살핀다거나 글의 뜻에 미루어 본다든가 하여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 관념론의 견해라고 하겠다.

4) 인식론은 Lock, Hume, Kant에 이르러 大成한 것으로 요약하면

① 인식 성립 여부의 측면에서

- 모든 인식은 경험에서 온다는 경험론(실재적 경험론)
- 선천적인 순수사고에서 온다는 합리론(실재적 합리론)

② 인식 대상의 측면에서

- 인식은 객관적인 실재를 그대로 模寫하는 것이라고 하는 실재론(관념적 경험론)
- 인식은 실재의 진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에 나타나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론(관념적 합리론)

(4) 언행록에서 주자서를 인용해서 李德弘에게 말한 글에서 “理雖散在事物 其用之微妙 實不外一人之心 初不可以內外精粗論註 理雖在物而用實在心 窮理者 須先知此義之如何”(퇴계 下: 702)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理雖在勿而 用實在心”이라는 것은 모든 이치는 모든 사물에 있으나 이 이치의 작용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하였고 또한 “窮理者 須先知此義之如何”라고 하여 이치를 추구하는 것은 먼저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여 입지 목적의식 등으로 심적 작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理가 사물에 산재하고 있으나 心의 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大學의 7장에 있는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선생은 鄭子中에게 답하는 글에서 “理氣合而爲心 有如許虛靈不測故事物纔來 便能知覺 今但因此等明訓 而加涵養體驗之功 積累多後 自當有豁然貫通處”(퇴계 上: 603)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 중 “心……虛靈不測故事物纔來 便能知覺”이라 한 글은 마음은 허령하여 사물을 보자 곧 지각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그러나 마음은 만물을 주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此等明訓 而加涵養體驗之功 積累多後 自當有豁然貫通”이라고 하여 합당한 이치를 먼저 알고 거듭 체험을 함양하게 되면은 자연히 환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유학은 실천본위이기 때문에 이론은 실천의 전제조건이 된다”(유정기, 1976 : 51)고 하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행동의 전제에는 반드시 이론(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체험”이라는 용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要必反之於躬行 卽吾身心 性情之中 益加體驗踐履之功”(퇴계전서 下: 868)이라 하여 身과 心 그리고 性과 情 중에서 체험이라 했고 “體驗於心 然後得之於己 眞實無雜”(퇴계전서 下: 694)이라고 하여 여기서는 마음에서 체험이라 하였다. 이를 본다면 체험에는 반드시 心과 身과 性과 情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 선생은 黃仲學의 질문에 답하는 글에서 “人心備體用 該寂感 貫動

靜 故其未感於物也 萬里咸具而 心之全體不存 事物之來 感而遂通”(퇴계 上: 486)이라고 하였다. 이 중 “人心備體用……貫動靜”이라 하여 사람의 마음은 만물을 주재하는 힘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으므로 어느 곳에나 통해서 “萬物之來 感而遂通”이라 하여 사물이 오면은 즉시 모두 느껴서 통하게 된다는 心의 작용을 통한 객관적인 실재를 그대로 구사하는 것이라는 관념적 경험론의 견해인 것이다.

(7) 선생은 李叔獻에게 답하는 글에서 “故窮理而驗於踐履 始爲眞知”(퇴계전서 上: 370)라고하여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실천에서 체험해야 비로소 참으로 아는 것이 된다고 하여 이론적 배경에는 실천적 경험이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보면 주자는 “卽物而窮其理……豁然貫通”이라 했거니와 柳正基는 “자기의 아는 이치로 궁구함으로서 一旦에 豁然하게 관통함에 이르러… … 吾心의 전체에 大用이 밝혀지는 것은 격물이라고 하고 「格物」은 객관적 세계에 있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致知」는 주관적 세계에 있는 이성의 사유로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진리를 인식하는데는 경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선형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가 합해져야만 성립되는 것이 유학의 인식론이라”(유정기, 1965 : 51)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퇴계선생은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주관적 이성의 사유로서 窮理하는 것으로 참다운 知에 이른다는 경험론과 관념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된다.

(8) 퇴계선생은 주자가 何叔京에게 답한 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曰持敬 尤須就視聽言動客貌辭氣上 做工夫”(退溪 下 : 645)라고 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모름지기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관해서 공부해야 한다하여 心의 작용은 대상물을 보고 듣는 것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치를 얻어진다는 心의 작용과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9) 鄭惟一이 퇴계를 평한 글에서 “其所思而得之者 不徒付之於空言

要必反之於躬行 卽吾身心性情之中 益加體驗踐履之功”(퇴계 下, 1986: 868)라고 하여 생각에서 얻은 것은 한갓 빈 말에만 두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돌이켜 몸소 행하고 내 몸과 마음의性情 중에서 몸소 체험을 더한다라고 하여 마음의 작용에서 얻은 이론으로 그냥 두지 않고 필히 체험을 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丁淳睦도 “퇴계의 敎學方法論을 知와 行의 并進이고 互進이다”라고 했다. (丁淳睦, 1985: 909)

언어의 뒤에는 체험의 뒷받침이 필히 있어야 한다는 Hoban, C.F.나 Dale, E.의 견해와도 같다고 하겠다.

(10) 선생은 논어를 강론하는 중에서 “爲學 須要體驗於心然後 得之於己 眞實無雜也 盡通諸經而 無心得之實 則昏而無得 思之於心而 不能習熟 則殆而不安”(퇴계 下: 694) 학문하는 것은 모름지기 마음에서 체험한 후에 얻은 것이라야 진실하다고 하고 또한 모든 경서를 다 읽어도 마음에 체득함이 없으면 얻은 것이 없는 것이며 마음에 두고서 능히 익혀야만 된다는 心의 작용을 통한 체험을 강조하는 점에서 관념론적 경험론의 견해가 된다고 하겠다.

(11) 趙穆이 퇴계선생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學問不事在於 讀書 當遊歷以廣聞見 雖義理不可次獨得 當有師友漸磨輔助 啓沃之益” 이 질문에 대하여 선생은 “君言極是 聞君有志 甚嘉之”(퇴계 下: 653)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보면 학문을 하는데는 오로지 독서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널리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하고 뜻과 이치 등은 홀로 얻어지는 것은 불가하여 師友의 도움으로 차차 함양된다고 하는 생각은 퇴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견학 등은 퇴계의 좋은 시각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언행록에서 金明一에게 “道在邇而人自不察耳 豈日用事物之外 別有一種也道理乎”(퇴계 下: 654)라 하여 일용생활상의 평이한 모든 것에 道라는 것이 있으니 공부의 근거로 비근한 일상생활문제부터 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13) 선생은 孟子大義를 강론하는 중에 “就日用存主 應接處 實下工夫 理會箇敬肆·義利·是非·得失之判”(퇴계 下: 537)

일상 사용하고 간직하고 주장하고 接應하는데 실제적인 공부를 하여 敬肆와 의리와 시비와 득실의 판단을 이해하여야 된다고 하여 실용적인 목적에서 실제 환경 속에서 실천을 통하여 공부해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고 실용적 생활상에서의 체험을 강조하는 인식성립의 면에서 실제적 경험론이라 할 수 있다.

(14) 선생은 啓蒙傳疑中 河回洛書를 설명하는 중에 “其象其說 已具於前 象指洛書一圖說 通大傳 孔劉關邵諸說 知者觀圖 思已過半 又參諸說 以通之經緯表裏之義 寧不可得耶”(퇴계 下: 212)라고하여 象과 해설은 孔·劉·關·邵·賢人들의 諸說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면만 보아도 그 반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해설을 참고한다면 諸說의 표리의 뜻과 경위를 보다 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도면과 해설의 복합효과를 말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사고작용을 부가하고 있다. 그리고 도면을 먼저 보게 하고 뒤에 해설을 보게 하고 있고 또 사고작용을 합하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Audio visual Commuication”의 기초견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퇴계의 저서 중에서 시각교수론적 견해는 많으나 그 중 14개, 항목에 ㄱ하여 분석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 퇴계의 教授論的 견해요약

① 心の 官(知覺)이 발하여 五性이 감동된다는 과정적 순이 되며 이것은 서양의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관념론의 견해에 속한다고 하겠다.

② 心の 기능은 신령하고 萬能하는 것이나 순수하고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응접되는 만물 만사를 공명정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방법으로 볼 때 관념적 경험론에 속한다고 보겠다.

③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주관적 관념론의 견해이다.

④ 목적의식 등으로 심적 작용을 전제하여 모든 사물에 산재하고 있는 理를 이해하게 되는 인식대상으로 봐서 관념적 합리론의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

⑤ 반드시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에 행동이 있어야 하는 즉 이론 다음에 실천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퇴계의 체험은 도덕·실천적 행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心과 性情이 함께 하는 감성적 체험·체득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⑥ 心의 작용은 모든 것에 통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응접되는 즉시 수용과약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관념적 경험론의 견해라고 하겠다.

⑦ 이성적 판단과 실천적 체험이 있어야 眞知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관념론과 경험론적 방법이 합해져야만 완전한 知에 이른다고 것이라고 하겠다.

⑧ 心의 작용과 경험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⑨ 생각만으로 얻게 된 이론과 체험이 합해져야 한다.

⑩ 心의 작용이 함께 한 체험에서 얻은 知가 眞知이다.

⑪ 학문에서 廣聞見을 좋은 것이라고 했다.

⑫ 「道」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다.

⑬ 학문에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실천적 환경하에서 해야 한다.

⑭ 도면과 해설이 복합해야 완전하게 이해가 된다.

Ⅲ. 退溪의 視覺教授方法論

이상 퇴계의 총저서 중 시각교수의 실제에서 4항목 그리고 견해에서 14항목에 亓하여 분석했으나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유사한 것들도 있어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圖說의 作成과 利用을 통한 견해

- (1) 도설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도설의 작성은 조리있고 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하며 도면 내의 각 항목간의 배열은 대비·대치를 잘 시켜 쉽게 분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반드시 도면과 해설이 합해져야 하고 도면을 먼저 제시하고 해설이 뒤따라야 한다.

2. 教授論的 견해를 통한 教授論

- (1) 心의 官(知覺)의 주재(思) 하에서 만물 만사를 체험 수용하여 이해하거나 體認하게 하는 견해
- (2) 心의 신령스러운 기능은 있으나 목적의식이나 당위감이나 선입견 등을 전혀 배제한 순수한 心의 상태에서 만물 만사를 응접 체험하여 자연 그대로 수용하여 이해하거나 體認하게 하는 견해
- (3) 心의 신령스러운 작용을 통해서 만물 만사를 응접 체험하는 상태 그대로를 수용하여 이해하거나 體認하게 하는 교수론 이것은 또한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험론과 정신작용의 선험적·관념론적 양방법이 합해져야 한다는 견해

3. 知·行의 측면에서 본 教授見解

유학적·학문적 방법론을 성격상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도덕적·행동적 측면이고, 둘째는 지적·이론적 측면이다. 그래서 이 두 면에 따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도덕적·행동적 측면의 견해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성적 판단이 먼저이고 후에 행동이 있게 되는 것이다. 「知行并進」, 「知行互進」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상에서의 방법이다. 즉 미완성의 知가 시행적 행동을 하게되고 이 행동에서 더 차원이 높은 知의 이해가 되고 또 일단계 높은 知로서 행동이 시행되고 이 행동에서 또 더 높은 知가 함양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성적 판단이 앞서고 행동이 뒤

따르게 되는 견해라고 하겠다.

(2) 知的 측면에서 본 教授論

신령스러운 心의 기능은 만물에 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만물 만사에 응접되면 즉시 수용될 수 있으나 선입견을 전혀 배제한 자연 그대로 수용하여 이해케 되는 견해

4. 哲學的·認識論的 측면서 본 퇴계의 견해

첫 항의 도설을 통한 견해에 있어서는 도면과 해설은 양면을 들고 있으나 도면은 간접적 재구성된 경험이 되겠고 해설은 사유활동을 통한 방법이 되는 것이어서 심적 작용을 전제하고 있고, 둘째 항에도 心의 주재와 체험으로 心의 작용을, 그리고 셋째 항에서도 心의 虛靈의 상태와 체험으로 心의 작용을, 그리고 넷째 항에서도 心의 작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는 뜻으로 퇴계의 교수론은 心의 작용이 없이는 어떠한 교수의 견해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경험·체험도 들고 있음으로 이것은 철학적 인식의 성립 여부로 볼 때는 볼 때는 실재적 경험론과 실제적 합리론의 양편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인식의 대상으로 볼 때도 관념론적 경험론과 관념론적·합리론적 요소가 복합되고 있다. 그럼으로 퇴계의 시각교수방법의 철학적 입장은 선험적 관념론과 경험론의 양편의 견해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5. 退溪의 視覺教授方法論

이상 네 항에서 집약된 견해들을 중심으로 시각교수방법론으로 정리해 본다. 그러나 교수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된다.

(1) 목적의식이나 당위감을 가지고 心의 주재하에 만물 만사를 응접 수용하게 되는 교수방법론

(2) 목적의식이나 당위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물 만사가 응접되고 感觸되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수용되어 이해하거나 체득하게 되는 교수방법론

(3) 목적의식이나 당위감도 가지고 또 心의 작용을 통해서 만물 만사를 응접하되 자연상태 그대로를 수용하여 이해·체득하게 되는 교수방법론

(4) 도덕적·행동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성적 판단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는 교수방법론

(5) 지적·인식적 측면에서는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만물 만사를 응접되는 그대로 수용하되 신령스러운 心의 작용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는 교수방법론

IV. 결 론

조선조 교육사상에서 시각교수방법에 있어서는 권근을 들고 있으나 필자의 조사한 바로서는 권근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실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 전부를 연구하여 조선조 시대에 있어서 발전된 시각교수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양이 많아서 爲先 퇴계선생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본론에서 퇴계의 시각교수방법의 실제와 견해들을 조사분석하여 퇴계의 시각교수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이 집약시킬 수 있었다.

1. 목적의식이나 당위감을 가지고 心의 주재하에서 만물 만사를 응접 수용하게 되는 교수방법론

2. 목적의식이나 당위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물 만사가 응접되고 感觸되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수용되어 이해하거나 체득하게 되는 교수방법론

3. 목적의식이나 당위감도 가지고 또 心의 작용을 통해서 만물 만사

를 응접하되 자연상태 그대로를 수용하여 이해 체득하게 되는 교수방법론

4. 도덕적·행동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성적 판단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는 교수방법론

5. 지적 측면에서는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만물 만사를 응접되는 그대로 수용하되 신령스러운 心의 작용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는 교수방법론